행동하는 세계, 평화의 빛을 꿈꾸다

이예린(중앙대 지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어딘가에는 가장 치열하게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하게 주어질 권리가 누군가에게는 온몸으로 부딪혀 싸워 지켜내야 할 만큼 간절한 소망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환경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타인이 직면한 삶의 양태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려는 노력이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오늘날 유엔이 지정한 지속 가능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또한 국제 사회의 보편적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홍콩, 자유와 정의를 위한 투쟁>

홍콩 시위,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지난 2018년 2월, 홍콩 국적의 남성이 대만 여행에 동행한 여성을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2019년 3월, 홍콩 정부에서 '홍콩 소환법'을 추진한 것이 홍콩 시위의 기폭제가 되었다.

4월 3일 심의가 시작된 '범죄인 인도 법안'의 대상 국가에는 대만은 물론이고, 중국 본토, 마카오 등도 포함되었다. 이 법안이 제정된다면, 중국 정부에 의해 홍콩 내 반중 인사들이 범죄자로 규정되어 중국에 인도될 수 있기에, 일국양제(一國兩制) 하에서 홍콩이 독립된 자치권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3월 31일에 법 제정을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난 이후 그 규모는 점차 확대되었다. 약 150만 명이 참가한 8월 18일의 시위는 평화·이성·비폭력을 의미하는 '화이비(和理非)' 집회를 표방하였으며, 시위대는 송환법 완전 철폐·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체포자 조건 없는 석방·경찰 행태에 대한 독립적 조사·행정장관 직선제와 보통선거 실시 등 5대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홍콩 경찰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시위에 대응했다. 결국, 몇 개월의 시위 끝에 9월 16일, 홍콩 정부는 공식적으로 범죄인 인도법 발의를 철회했다. 그러나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에서 시작된 홍콩의 개혁과 변화에 대한 소망은 시민운동의 한 형태로 발전하였고, 지금도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공권력의 인권 유린, 간과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문제

홍콩 경찰은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가스, 고무탄, 경찰봉 등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경찰의 공격으로 인해 크고 작은 부상은 물론, 생명에 큰 위협을 받을 정도의 심각한 부상을 입은 시위대도 있었다. 실제로 8월 12일, 침사추이의 한 시위대는 경찰이 발사시킨 물체에 의해 실명의 위기에 처했으며, 10월 1일에는 경찰이 실탄을 발포하여 중상을 입은 시위 참가자가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또 임산부를 폭행하는 경찰들의 모습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지난 11월 4일에는 경찰의 최루탄을 피해 달아난 것으로 추정되는 대학생이 건물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렇게 무자비한 폭력이 난무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6,000여 명이 체포되었으며, 그 숫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경찰이 진압 과정에서 사용된 비살상무기의 양은 최루탄만 6,000여 발 등으로,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 Amnesty International)는 일련의 '범죄인 인도 법안' 시위에서 목도할 수 있었던 경찰력의 남용과 고문 및 기타 구금 중 부당 대우에 관한 조사를 시행할 것을 홍콩 당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특히 총기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 '생명의 위협 또는 심각한 부상의 위험을 마주했을 때만 허용하는 것'이 UN의 기본적 가이드 라인임을 감안할 때, 이는 인권에 대한 모욕이며, 국제인권법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인권법에 따르면, 경찰의 무력 사용은 합법성, 필요성, 적절성의 원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시위가 대체로 평화로운 방식을 통해 변화를 이끌려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홍콩에서 시위대를 진압하는 경찰들의 과도한 무력 사용으로 인해 본래의 평화 시위까지 경찰에 향한 폭력적 대응으로 변질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전 세계의 시위, 평화에 다가가는 발걸음>

홍콩뿐 아니라 전 세계 각국에서도 인권을 찾기 위한 평화의 걸음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홍콩의 경우처럼 장기화하지는 못했으며, 정부에 의한 탄압에 시달려야 했다.
정권의 부패를 꼬집고, 개혁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던 이집트, 칠레, 레바논 등은 국가가 자국민을 지키고, 개인의 삶을 보장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공적 영역의 자원을 남용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투쟁이 필요했다. 지금의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그들의 인권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평화에 다가가기 - 행동하는 세계 시민>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세계와 인류의 평화는 노력을 통해 쟁취하여야 할 지속 가능한 발전의 근본 토대라고 볼 수 있다. 평화가 없이는 그 어떤 발전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수차례 목격해 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보장의 문제가 대두하면서, 개인이 국제관계의 주체로서 지위를 갖게 되었다. 이는 과거의 국가중심주의적 시각에서 탈피한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에 발맞추어 국제 연합(UN)은 어떤 환경에서도 보장받아야 할 개인의 권리를 천명하고, 이를 전 세계적 약속으로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역사적 배경 아래, 국가 간 합의를 통해 만들어온 국제 사회의 질서는 이제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가치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가치에 대한 교육, 즉 세계 시민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교육이 무엇보다 시급해졌다. 그러나 교육에 앞서, 우리는 세계 시민 교육의 필요성을 먼저 상기해야 한다.
과거 독재, 군부 정권 아래 이미 자유와 민주주의의 역사를 창조한 우리나라 역시 지금의 홍콩과 다르지 않았다. 결국, 긴 역사의 흐름에서 우리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암흑의 시간을

견디고, 투쟁하여 평화와 정의를 이룩해내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하며, 인권을 보장받으리라는 의지와 적극적인 행동이 우리의 현재를 만든 것이다. 홍콩 역시 이제 막 그 암흑의 시간에 접어들었다. 우리는 우리가 걸어온 길을 홍콩에 비추어 다시 보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세계 시민 교육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다.
세계는 '나'가 아닌 '나'들의 집합이다. 서로 다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삶을 살지만, 각자 자신을 독립된 주체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같은 존재이다. 본질적으로 같은 존재들이기에 현재 '나'에게 닥친 일이 아니라고 하여 모른 척할 수는 없다. 항상 나눠야 하고, 언제나 연대해야 세계 시민으로 우리는 공존할 수 있다. 그리고 타인의 문제를 방관하지 않는 것을 넘어 완벽히 이해하고, 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나가야 한다. 이런 태도를 바탕으로 우리는 진정한 번영을 일구어낼 수 있기에, 세계 시민 교육으로 '나' 아닌 '나'들에 다가가야 하는 것이다. 결국, 교육을 통해 홍콩의 사태의 쟁점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결론을 낼 수 있다. 이제 시각을 좀 더 넓혀보자. 평화를 향한 타국 국민들의 외침이 들리는가?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가? 이러한 물음을 바탕으로 세계 시민 교육을 위한 우리의 당위적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다.
이렇게 세계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를 공부한 후에는, 피상적인 언쟁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특히 현세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청년들의 국제적 인식이 미래를 결정한다고 단언할 수 있다. 더 나은 세계, 평화로운 세계, 지속가능한 번영의 세계를 꿈과 열정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한 시대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핵심 과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의 아름다운 투쟁이 그 빛을 잃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투쟁이 인권보장과 정의를 위한 보편적 권리로서 그 누구에게도 억압받지 않을 때까지, 그리고 투쟁의 결과가 세계인 모두가 영위할 수 있는 진정한 평화로 찬란하게 빛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한다.

참고자료(사진)
http://now.rememberapp.co.kr/2019/08/19/4757/

https://www.ajunews.com/view/20190902144912625

https://apceiu.tistory.com/entry/%EC%84%B8%EA%B3%84%EC%8B%9C%EB%AF%BC%EC%9D%98%EC%8B%9D-SNS-%EC%BA%A0%ED%8E%98%EC%9D%B8